

한국형 CIP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Designing Korean Cataloging in Publication System

오 동 근(Oh Dong-Geun)**

여 지 숙(Yeo Ji-Suk)***

목 차

- | | |
|-----------------------------|------------------------|
| 1. 서론 | 4. 1 CIP의 도입 필요성 |
| 2. 목록작성업무의 상호협력과 CIP | 4. 2 한국형 CIP의 설계와 운영방안 |
| 3. CIP의 등장배경과 운영현황 | 5. CIP 도입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 3. 1 CIP의 등장배경과 역사 | 5. 1 정책 및 예산상의 문제 |
| 3. 2 주요국의 CIP의 도입 및 운영현황 | 5. 2 업무 및 기술상의 문제 |
| 4. 한국에 있어서 CIP의 도입필요성과 운영방안 | 6. 결 언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CIP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국을 중심으로 CIP의 등장배경과 역사, 현황, CIP의 도입필요성과 효과,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한국형 CIP의 기본적인 개념과 모델을 제시하고, CIP의 도입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책 및 예산상의 문제와 업무 및 기술상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BSTRAC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ackground,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CIP; its needs and effects; and suggestions for introducing it in Korean library situation. And it recommends the basic concepts and a model for Korean libraries, and analyzes the related issues, both those in policy and budgets and those in operations and processing.

키워드: 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국가대표도서관, 도서관상호협력-목록작성

* 이 논문은 2001년 2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출판예정도서표준 목록(CIP) 제도 도입관련 세미나”에서 행한 주제발표의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odroot@kmu.ac.kr)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2001년 5월 24일

1. 서론

CIP는 Cataloging in Public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출판예정도서 표준목록” 또는 “출판물목록정보”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CIP는 기본적으로 단행본 자료가 출판될 때 그 출판물의 일정 위치(대개는 표제지의 뒷면)에 표목과 서명, 저자, 주기사항, 총서명, ISBN, 분류기호 등을 포함하여 목록작성에 필요한 간략한 정보들을 인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CIP는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의 정리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시작되었다. 즉 CIP는 특정기관에서 작성한 CIP 데이터를 다른 도서관에서 카피편목(copy cataloging)을 통해 그대로 전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비용의 절약은 물론 목록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러한 CIP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몇몇 논문을 통해 지적된 바 있었다(조은주 1997; 홍순영 1983). 아울러 최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2년 9월에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여 “출판예정도서 표준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숙현 2001).

그러나 선행연구에는 여전히 CIP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 논문은 CIP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그 도입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최근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한국형 CIP의 도입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한국형 CIP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목록작성업무의 상호협력과 CIP

원래 도서관의 목록은 특정도서관의 장서와 결부된 한정된 이용자를 위하여 작성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목록의 작성도 각 도서관 스스로가 외부기관의 도움 없이 수행하는 이른바 자체편목(original cataloging)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정필모, 1993, p.145).

그러나 출판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서지정보와 자료를 그 생산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목록작성업무의 패턴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Taylor 2000, p.435).

이와 같은 영향으로, 오늘날의 도서관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도서관의 목록정보를 직접 만들어내지 않고서도, 다른 도서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생산한 양질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값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일부의 기관이나 시스템은 처음부터 널리 유통시킬 것을 목적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관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정필모 1993, p.145).

그 결과, 오늘날의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순

수한 의미의 자체편목을 실시하기보다는 자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나 각종 서지유틸리티(bibliographic utilities)에서 작성한 목록정보를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카피편목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최근의 경우 많은 상업적인 턴키(turn-key)업체들이 국내도서에 대해 이와 같은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도서관에서는 납품되는 외국도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해 줄 것을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관들이 제공하는 목록정보는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현상은 역설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되는 목록정보의 제공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목록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은 어느 특정기관에서 목록레코드를 작성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중앙집중식편목(centralized cataloging) 방식과 둘 이상의 기관에서 목록레코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이를 상호간에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협동편목(cooperative cataloging) 또는 분담편목(shared cataloging)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정필모 1993, pp. 145-146).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이들 시스템은 모두 목록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목록이용자들에게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CIP는 인쇄카드, 종합목록, MARC 서비스 등과 더불어, 이상에서 살펴본 목록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3. CIP의 등장배경과 운영현황

이 장에서는 CIP의 등장배경과 역사, 그리고 현재 CIP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1 CIP의 등장배경과 역사

자료의 출판과 동시에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1853년 Charles Jewett가 제안한 것과 같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안은 1876년 Justin Winsor와 R. R. Bowker에 의해 이루어졌다. Winsor는 출판사가 통일된 규격의 슬립(slip)에 출판된 책에 대한 서지레코드(bibliographical record)를 책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ewlen 1991, p.39).

같은 해 C. A. Nelson도 도서관의 인쇄카드와 동일하게 배열된 슬립이 출판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77년에 Winsor와 Bowker, Dewey는 A Committee on Publishers' Title Slips를 구성하고, 이 슬립을 위한 권고안 등을 발표하고 실제로 슬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1880년 2월 일반의 관심부족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출판물에 인쇄카드를 포함시켜 판매한다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비록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1901년 LC가 인쇄카드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채택되게 되었다(Pope 1970).

1901년부터 미국의회도서관에서 실시한 인쇄카드의 배포는 중앙집중식편목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사건으로서, 윌슨사(Wilson Company)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인쇄카드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도서의 구입과 동시에 질 높은 목록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절약은 물론 편목의 질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인쇄카드의 배포는 출판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도서관이나 윌슨사에서 이미 출판이 완료된 상황에서 해당 출판물을 입수하거나 출판정보를 확인한 후에 편목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인쇄카드가 작성되기 이전에 해당출판물을 입수한 경우에는, 인쇄카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별도의 간이목록을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상의 지체(time lag)를 보완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시도 중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CIS(Cataloging in Source)이다.

CIS는 1958년 7월부터 1959년 2월까지 미국 의회도서관(LC)에 의해 시도된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이 기간 동안 LC는 출판사가 보낸 교정쇄를 이용하여 해당자료가 출판되기 전에 1,203권의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목록들은 교정쇄와 함께 출판사에 다시 보내졌고, 총 1,203종 가운데 1,082종에 인쇄되었다. 이 목록정보들은 LC 인쇄카드의 복사형태로 표제지 이면

(verso)에 인쇄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1960년에 LC는 CIS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다. LC는 CIS를 재정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서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Wingate 1972, pp.423-424).

CIS의 실패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Clapp 1971, p.13).

- ① 출판사의 출판계획의 지연
- ② 출판사의 비용 증가
- ③ LC 목록자의 압박감
- ④ LC의 과중한 비용 부담
- ⑤ CIS 저록(기입: entry)정보와 실제 출판물에 나타나는 일부요소의 불일치
- ⑥ 필명을 사용하는 저자의 출생연도와 실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의 반대 등

LC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한 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냈다. 그러나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의 교정쇄를 24시간 동안이나 지체시켜야 하기 때문에, 출판계획에 지연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

또한 CIS를 책에 인쇄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과 함께 필명을 사용하는 저자의 경우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것도 CIS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LC에서도 24시간 안에 교정쇄를 바탕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출판사에 되돌려 보내는 것에 대한 목록담당 사서들의 압박감과 피로도

가 너무 높았으며, CIS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 또한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판된 책과 CIS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일치하지 않는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CIS와 실제 출판된 책 사이에 나타난 불일치는 CIS가 인쇄된 1,082권 중 615권(57%)에서 나타났다. 총 오류 수는 1,062개로 이중 거의 절반 이상(505개)이 형태기술사항에서 나타났으며, 184개는 출판사항에서 나타났다(Wingate 1972, p.427). 따라서 CIS를 실제로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입수된 책과 CIS를 대조해 보아야만 하며, 불일치요소가 있는 경우 다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CIS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서관들은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참여한 대부분의 출판사들도 만일 그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유익하다면 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소요될 비용으로 인해, 그 계획은 중단되었다(Newlen 1991, p.41).

한편 미국의 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는 이후 CIS와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 7월 1일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와 CLR (Council on Library Resources)의 자금지원에 의해, 이전의 CIS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한 CIP가 새로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결과 출판 과정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CIP 데이터시트 제출때까지 미확정 상태로 남을 수 있는 형태기술사항이나 출판사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 처리기간도 출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CIP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바로 이 CIS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CIS와 CIP는 모두 목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것인데, 출판물의 발행과 동시에 목록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이다.

3. 2 주요국의 CIP의 도입 및 운영현황

현재와 같은 CIP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구소련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971년 미국과 브라질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는데, <표 1>은 그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예이다.¹⁾

3. 2. 1 대상자료의 범위

현재 CIP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서지(National Bibliography) 사업의 일환으로 CIP 레코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CIP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자국에서 출판되는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행본 이외의 자료는 제외되며,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자료 또한 제외된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단행본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CIP 레코드를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CIP 대상이 되는 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캐나다 CIP 홈페이지 참조).

- 악보(musical scores)

- 전시목록 및 미술책(exhibition catalogues and art books)
- 교과서(textbooks)
- 리프린트(reprints)
- 페이퍼백(paperbacks)
- 가제식(加除式) 출판물(looseleaf publi-

〈표 1〉 각국의 CIP 도입 현황

국가명	시작연도	방식	운영센터	CIP 근거자료
Australia	1974	중앙집중식	국가대표도서관	교정쇄, 표제지, 목차, 서문 서론
Brazil	1971	분산식	CIP센터(2개)	미확인
Canada	1976	분산식	국가대표도서관 및 위탁도서관	데이터 시트, 표제지, 목차, 서문, 출판예정도서를 위해 준비한 모든 광고자료(publicity materials)
China**	1991	중앙집중식	ALCP***	데이터시트, 표제지, 책의 복사물이나 샘플
Columbia*	1978	중앙집중식	ICFES****	데이터시트, 권두지면, 목차 등
Germany	1974	중앙집중식	국가대표도서관	미확인
Malaysia	1976	중앙집중식	국가대표도서관	교정쇄, 표제지, 목차, 서문, 서론
Malta*	1978	분산식	Public Lending Library	교정쇄 (또는 전화를 통한 제공 정보)
Netherlands	1980~1996	(중앙집중식)	(국가대표도서관)	(현재는 중단상태)
New Zealand	1974~1992, 2001~	중앙집중식	국가대표도서관	데이터 시트, 표제지, 목차
Russia*	1960	분산식	각 출판사	자체작성(원고)
United Kingdom	1975	중앙집중식	BDS*****	데이터 시트
United States	1971	중앙집중식	국가대표도서관	데이터 시트, 원고

* 원자료 미확인(조은주 1997의 내용 참조.)

** Liu, Jia 1996의 참조.

*** Archives Library of Chinese Publications

**** Instituto Colombiano para el Fomento de la Education Superior

***** Bibliographic Data Services

1) 각국의 CIP의 현황은 먼저 국가중앙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일차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여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료를 조사하지 못한 국가(〈표 1〉에서 *로 표시된 국가와 중국)의 경우는 담당자의 회신이 없어, 현재의 데이터를 보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표 1〉의 CIP 현황에 대한 설명은 원자료가 조사된 국가에 관한 것임을 밝혀둔다. 다만 *는 조은주 1997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해당국가별로 최신의 원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다소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Australia: <http://www.nla.gov.au/services/CIP.html> (2001. 4. 7); Brazil: <http://slim.emporio.edu/globenet/kc/godst.htm> (2001. 5. 14) 과 Liana Amadeo (National Library of Brazil의 Bibliographic Services Coordinator)의 이메일: Canada: <http://www.nlc-bnc.ca/6/15/s15-05-e.html>(2001. 5. 11); China: Jia Liu 1996, p.72.; Germany: http://www.ddb.de/professionell/cip_e.htm(2001. 5. 7); Malaysia: <http://www.pnm.my/pamplet-e.htm>(2001. 4. 7); Netherlands: Koninklijke Bibliotheek(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의 참고사서인 Jan Smiths의 이메일: New Zealand: National Library fo New Zealand의 Book Plus Team에서 Bibliographic Services를 담당하는 Mercine Davidson의 이메일: United Kingdom: <http://portico.bl.uk/services/bsds/nbs/records/cip.html>과 Rovert Hill(British Library에서 National Bibliographic Service(NBS)담당)의 이메일: United States: <http://lcweb4.loc.gov/cip>(2001. 2. 4)).

cations)

- 마이크로형태자료(microforms)
- CD-ROM 및 기타 컴퓨터 디스크 컴퓨터 소프트웨어(CD-ROMs and other computer discs, computer software) 등

캐나다에서 CIP 대상이 되는 자료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것들(LC 홈페이지 참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CIP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는 캐나다가 가장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CIP를 도입할 경우는, 판매용도서와 정부간행물, 대학출판물, 번역서, 책자형태의 악보 등의 단행본 형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숙현 2001, p.11).

3. 2. 2 운영기관 및 센터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CIP의 운영주체와 그 방식이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느 나라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이를 운영하는 중앙집중식의 시스템을 채택하는 반면, 어느 나라에서는 지역의 도서관들이나 그 밖의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분산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는 LC라는 국가대표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중앙집중식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는 분산식으로 CIP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주도

는 캐나다 국가대표도서관에서 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는 위탁도서관(agent library)이 있어 출판사는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CIP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가대표도서관이 아닌 두 개의 CIP센터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Rio De Janeiro에 있는 Brazilian Council for the Book(CBL)이고, 다른 하나는 Sao Paulo에 있는 National Publishers Syndicate(SNEL)²⁾이다.

영국의 경우는 중앙집중식으로 CIP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가중앙도서관(British Library)은 1987년까지만 생산하였고, 그 이후는 서적상(book trade organization)과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는 도서관과 서점들에게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전문회사인 Bibliographic Data Services(BDS) Limited가 CIP 레코드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는 1996년부터 국가중앙도서관에서 CIP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네덜란드 국가중앙도서관(Koninklijke Bibliotheek)은 1996년 4월까지만 CIP 레코드를 생산했고, 그 이후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부서도 폐지시켰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이 서비스를 계속할 비용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의 대부분의 출판의 책을 배포하는 회사(central book-distributor)에서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서비스는 ISBN의 발행과 등록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의 CIP를 설계

2) 브라질 국가중앙도서관의 사서인 Liana Amadeo의 회신에 의하면, 브라질은 SNEL을 통해서 CIP를 생산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가중앙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BL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민간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맡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주도의 CIP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차후의 여건에 따라 민간으로의 이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³⁾

3. 2. 3 CIP의 근거자료와 송부절차

일반적으로 CIP의 근거자료는 해당출판물의 교정쇄가 된다. 그러나 현재 주요국에서는 CIP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반드시 교정쇄를 요구하지는 않고,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출판물에 관한 데이터시트나 권두지면(표제지나 목차)의 복사본 등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것은 출판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자칫 제공되는 정보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책이 출판된 후 그 1부를 LC에서 접수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CIP 레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출판된 책을 보고 LC의 사서가 형태기술사항(페이지수와 크기 등)을 추가하고, 서명이나 부서명, 총서명, 저자, 주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게 된다(LC 홈페이지 참조).

한편 IFLA에서는 이와 같은 CIP 프로그램

의 국제화와 그 중요성에 부응하여, 이를 세계서지통정(UBC: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의 일부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년에는 CIP 데이터시트의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IFLA 1986).

아울러 이미 1999년 이후 LC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CIP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CIP 프로그램에서는 우편이나 팩스는 물론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숙현 2001, p.13).

4. 한국에 있어서 CIP의 도입필요성과 운영방안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CIP의 도입필요성과 이를 도입할 경우에 따르는 장점,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 1 CIP의 도입 필요성

이미 언급한 것처럼, CIP는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의 정리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얻게 된다.

① 편목업무를 경감시켜 준다. 즉 도서 자체에 포함된 목록정보를 그대로 또는 일부의

3) 이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출판예정도서 표준목록(CIP) 제도 도입관련 세미나”에 참여한 출판계의 한 인사는 이를 출판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이후 한 참석자의 말대로, “의약분업논쟁”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의 단서는 다음 장의 분석에서 어느 정도 제시될 것으로 본다.

수정을 통해 카피판목에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표목의 선택과 형식의 결정, 주제명의 선택, 분류기호의 부여 등에 소요되는 목록작성 시간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② 각 로컬도서관의 목록의 질을 개선시켜 준다. 즉 CIP 데이터는 국가대표도서관이나 그 밖의 중요 도서관의 목록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수준 높은 목록데이터로 완성되기 때문에, 특히 작은 규모의 영세 로컬도서관의 경우 그 목록의 수준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③ 이용자에게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자료의 정리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CIP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출판예정도서 목록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주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료의 입수와 제공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출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

① 출판물의 사전홍보가 가능해지게 된다. CIP 데이터를 소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하여 출판예정도서에 관한 정보를 각 도서관과 서점,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출판예정도서를 선택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출판물의 유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출판물의 판매를 증대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업무 비용을 절감한 도서관들이 절감된 예산을 자료구입비로 대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출판물의 판매가 증대될 것이다.

이용자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관의 업무 가운데 가장 복잡한 업무의 하나인 정리업무가 개선되고 그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잘 정리된 자료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더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로컬도서관 이용자의 경우 목록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목록과 자료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출판예정도서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CIP는 3자가 공히 이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다(김남석 1995, p.224). 나아가 이와 같은 CIP의 시행은 단순히 이상과 같은 국내 관련당사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서지정보를 그 나라의 국가기관이 표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계출판물의 서지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한다는 세계서지통정의 기본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CIP 정보는 바야흐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는 한국학 연구로 인하여 다수의 외국 도서관에게도 우리 서적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사서가 없는 외국도서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학 연구자료의 빠른 해외홍보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홍순영 1983, p.107).

이상과 같은 이점에 따른 당위성과 이미 ISBN 제도를 통하여 출판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했다는 능력의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CIP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2 한국형 CIP의 설계와 운영방안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이나 민간기구의 센터에 관계 없이, 특정의 국가CIP센터(NCIPC: National CIP Center)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식의 한국형 CIP의 개념과 일반적인 운영절차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중앙집중식 CIP의 개념과 일반적인 운영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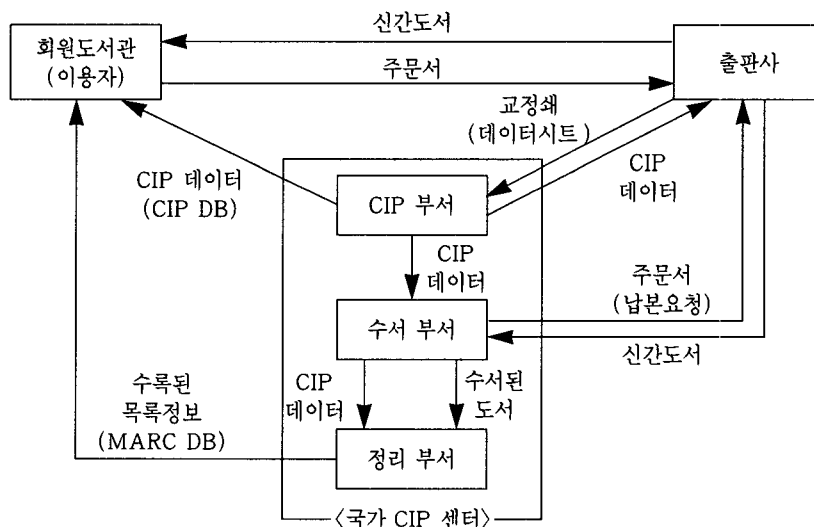
이와 같은 가칭 국가CIP센터의 운영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형 국가CIP센터는 센터내에 CIP 부서와 수서부서, 정리부서를 두는 종합센터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센터는 납본 등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CIP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문헌정보자원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국가서지센터를 운영하고, 그와 같은 기관이 CIP를 운영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국가문헌과 서지정보가 유기적으로 관리되어, 수집과 정리의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CIP의 운영에 있어서는, 출판사에서 교정쇄와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데이터시트를 CIP 신청서와 함께 국가CIP센터의 CIP 부서에 보내면, 이 부서의 편목전문가는 필요한 목록정보를 담은 CIP 데이터를 작성하여 해당출판사로 보내게 된다. 출판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장소(대개는 표제지 뒷면)에 이를 인쇄하게 된다.

한편 CIP 부서에서는 CIP 데이터를 수서부서로 보내는 한편 CIP 데이터베이스로 보



<그림 1> 한국형CIP의 개념도

내게 된다. 수서부서에서는 이 CIP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출판사에 신간도서를 주문하게 되고, 자료가 입수되면 수서에 관련된 정보를 보완하여 자료와 함께 정리부서로 보내게 된다.

정리부서에서는 CIP 데이터와 해당자료를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목록정보를 완성하고 이를 MARC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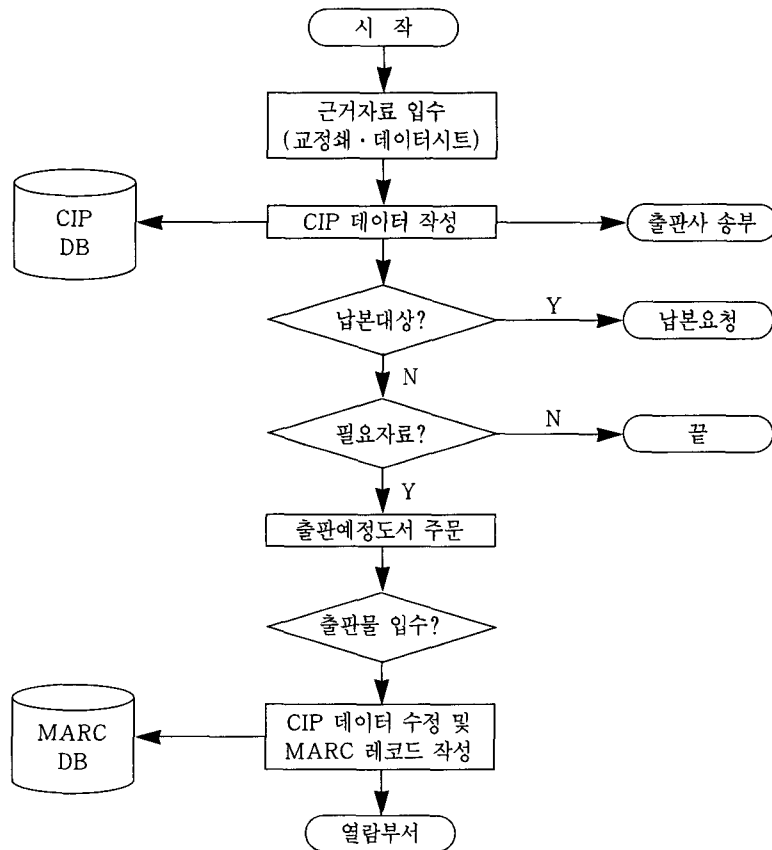
각각의 로컬도서관에서는 CIP 데이터베이스의 CIP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주문을 하고, CIP 데이터를 근거로 하거

나 MARC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정보를 활용하여 해당도서관의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이상의 작업순서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5. CIP 도입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CI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를 정책 및 예산상의 측면과 업무 및 기술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CIP의 업무 흐름도

5. 1 정책 및 예산상의 문제

CIP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예산상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단일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출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망된다.

5. 1. 1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CI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주도기관(국가CIP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CIP센터는 CIP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그와 관련된 출판사와의 조정역할과 이용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역량은 인적, 물적, 재정적 측면을 망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 높은 데이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CIP 정보의 신속한 부여와 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작업공간과 시설,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소요될 것이다.

5. 1. 2 국가적 지원체제의 확립

무엇보다도 CIP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아무리 이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이점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출판업계나 도서관계의 협조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홍순영 1983, p.108).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미 CIS 프로그램의 실패당시에 경험했던 것처럼, 해당기관과 CIP 목록담당자의 과중한 부담과 압박감으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CIP 제도는 특정기관이나 이해당사자의 희생적인 노력이 아닌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CIP센터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각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Newlen 1991, p.41), 국가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납본제도와 같은 관련제도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5. 1. 3 출판사와의 협력관계의 구축

아울러 CIP 제도는 출판사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속에서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출판사들은 우리가 이미 ISBN의 도입당시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제도를 또 하나의 사전검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CIP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홍보하고 출판계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구나 CIP의 경우에는 이미 CIS 프로그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출판일정에 다소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도입된 지 10년이 된 ISBN의

경우도 꾸준히 그 수가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출판사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

5. 2 업무 및 기술상의 문제

CIP 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데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못지 않게,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들의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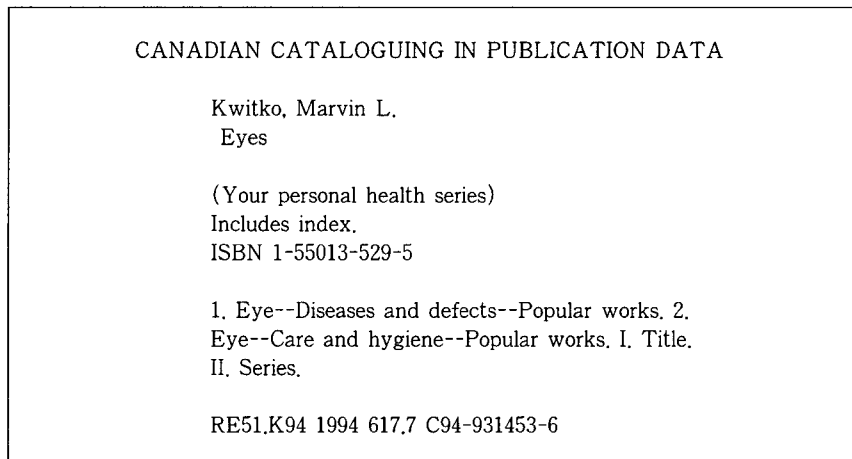
5. 2. 1 관련 서지도구의 정비 필요성

우선 자료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서지도구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림 3>에 제시된 CIP 데이터의

실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하고, 실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CIP 데이터에는 저자명, 단체명, 통일서명, 주제명 등을 포함한 표목과 서명, 주기사항, 총서명, ISBN, 분류기호 등이 포함되게 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서지도구들의 정비가 필수적이다(오동근 2000 참조). 저자명과 단체명, 통일서명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를 통한 통일된 전거정보가 갖추어져야 한다. 주제명의 통일을 위해서는 주제명표목표가 완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표목부의 데이터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록규칙의 표목부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어느 하나도 우리의 실정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없는 게



<그림 3> CIP 데이터의 실예 (캐나다 CIP 홈페이지의 데이터)

4)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출판 예정도서표준목록(CIP) 제도 도입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출판계의 한 인사는 시간의 문제나 제출자료, 납본, 도서관 자료구입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CIP의 도입에 대해 다소간 부정적 시각을 비추었다. 이것은 출판계 관계자의 거의 공통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CIP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출판계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실이다.

분류기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분류기호의 작성의 근거가 되는 분류표 중 표준분류표인 KDC는 1996년에 신판이 발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CIP를 도입할 경우 그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DDC의 경우는 한국 관련항목의 재전개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서지도구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CIP 데이터를 생산해내게 된다면, 그것은 중앙집중식 목록을 통해 그 품질을 제고시킨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채 수준 이하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5. 2. 2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교육훈련

CIP의 데이터의 질은 관련서지도구의 정비는 물론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들이 작성한 데이터는 전체 도서관계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실수는 자칫 영속적인 수정불가능한 실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집단은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미 CIS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것처럼, CIP 데이터의 누락과 불일치 가능성은 비록 형태사항 등 가변적인 요소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어 성공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제대로 올라 이른바 카피편목이 일반화된다고 하더라도, 각 로컬도서관에서는 여전히 필수적인 정idy원, 즉 분류와 편목업무를 담당할 정idy원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중앙기관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자관에 맞도록 카스터마이즈(customize)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5. 2. 3 처리기간단축을 위한 최신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활용

이미 CIS 프로그램의 도입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처럼, 출판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의 하나는 CIP 데이터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교정쇄가 나오는 상태에서 국가CIP센터에 CIP 데이터를 요청한 것이므로, 좀 더 빠른 시간안에 CIP 데이터를 받고 싶어할 것이다. 더구나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업적 출판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 2주일 이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LC 홈페이지 참조). 과연 우리의 출판사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절할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요구를 국가CIP센터에서는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처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이메일 활용계획은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숙현

2001, p.13).

5. 2. 4 CIP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과 보완

CIP 데이터는 출판사는 물론 도서관계 전체와 서적상 그리고 여러 이용자집단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에 정자료의 선택과 주문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처럼, CIP 데이터는 최종적인 목록데이터는 아니라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출판물과 CIP 데이터간의 불일치가 여전히 상존할 수 있다. 따라서 출판물의 발행과 동시에 실물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보완하고 KORMARC 데이터로 완성하여 전체도서관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결 언

이상에서는 CIP를 한국에서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분석해 보고, 한국형 CIP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CIP가 도서관과 출판사, 이용자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여건

또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고 본다. 다만 기본적인 서지 도구의 정비 등 몇 가지 점에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를 단시일내에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지도구들도 정비하면서, 출판사에게는 그 이점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납본제도는 물론 KORMARC와 KOLAS 등 국가목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계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CIP센터의 개념은 납본 등을 통한 수서와 CIP를 포함한 정리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종합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것이다.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형 CIP 제도가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00. 한국문헌번호편람. 4 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정보센터.

김남석. 1995. 자료목록학. 제3증보판. 대구: 계명대출판부.

오동근. 2000. 한국형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21-47.
- 이숙현. 2001. CIP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출판저널 423, 10-15.
- 정필모. 1993. 목록조직론. 개정증보판. 서울: 구미무역.
- 조은주. 1997. CIP의 시행에 관한 고찰. 행간 윤영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517-535.
- 홍순영. 1983. 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및 그 도입에 관한 소고. 논문집 (이화여대) 42: 97-110.
- Clapp, Verner W., 1971. "CIP in Mid-1970", *Library Resource & Technical Services*, Vol. 15, No.1. 12-22.
- Gislason, Thora, 1986. "CIP: how it's being used", *Canadian Library Journal*, Vol. 43. 413-416.
- IFLA. 1986. *Recommended standard for Cataloging-in-Publication: The CIP data sheet and the CIP record in the book*. London, IFLA.
- Liu, Jia, 1996. "CIP in China: the development and status quo",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2, No.1. 69-76.
- Newlen, Robert R., 1991. "The Power of CIP", *Library Journal*, Vol. 116, No. 12. 39-42.
- Pope, Elspeth. 1970. "Cataloging-in-Source," In: *Encyclopedia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 New York: Marcel Dekker. 231-242.
- Quinn, Judy, 1991. "Is CIP All it can be?" *Library Journal*, Vol.116, No.12. 40.
- Taylor, Arlene G. 2000. *Wynar's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9th ed.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 Wheeler, Joseph L., 1971. "Cataloging in/at Source: why we must have Cataloging in Publication", *Library Resource & Technical Services*, Vol. 15, No.1. 6-12.
- Wingate, Henry W. 1972. "Cataloging-In-Publication: problems and prospects", *Library Resource & Technical Services*, Vol. 16, No.4. 423-432.
- Zhiping, Hao, 1996. "The Commencement and Advancement of China's Cataloging in Publication," *62nd IFLA General Conference - Conference Proceedings - August 25-31, 1996*. <<http://www.ifla.org/IV/ifla62/62-zhjh.htm>> 2001. 2. 11.
- 캐나다 CIP 홈페이지
<<http://www.nlc-bnc.ca/cip/ecipgui.htm>> 2001. 2. 11.
- 미국의회도서관 CIP 홈페이지
<<http://cip.loc.gov/cip/>> 2001. 2. 11.